

특집 도시 커먼즈

##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동아시아의 시선으로 보는 도시적 커먼즈\*

From Village Communities to the Urban Commons:

Rarticulating the Urban Commons from a View of East Asia

한경애\*\*

본 논문은 커먼즈와 도시적인 것(the urban)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동체와 국가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경험에 기반해 도시적 커먼즈(the urban commons)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70년대 서울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도시빈민여성들이 어떻게 도시적 커먼즈의 주체로 등장했는지 살펴본다. 공동체, 자원, 실천을 커먼즈의 기본 요소로 파악하는 기존의 커먼즈론은 전통적 커먼즈의 이미지와 강하게 결부될 뿐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 간의 경험이 북미,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의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체와 객체, 혹은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분법적 인식론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도시적 커먼즈는 시골과 도시의 차이를 지우며 행성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자, 잉여의 생산과 착취가 공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시대에 지배적인 삶-형식을 둘러싼 삶정치적 투쟁이다. 1970년대 서울의 난국희망협동조합의 사례는, 무수한 아이들이 마주치고 교통하는 도시적 커먼즈의 조건이 어떻게 개인과 집합이 연결되고 나누는 방식과 거리를 조절하고 재발명하는 주체화의 과정을 촉발하는지 보여준다.

주요어: 커먼즈, 도시적 커먼즈, 마을 공동체, 일본, 한국, 도시빈민여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 S1A5B8096446).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urbancommonz@gmail.com).

## 1. 서론

이 글은 커먼즈(communs)와 도시적인 것(the urban)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커먼즈와 공동체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도시적 커먼즈(the urban commons)를 재정의한다. 또한 서울에서 만들어진 도시적 커먼즈의 선구적 사례인 1970년도 난곡희망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도시적 커먼즈가 타자와 소통하는 “도시적” 감수성에 기반하여 경계 지워진 공동체와 그에 뿌리내린 감각들을 초과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불러온 다양한 생태적·경제적·도덕적 위기 속에서 커먼즈라는 개념은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적 교환 시스템을 내파하고 근대적인 통치체제를 넘어서는 자율적인 정치의 양식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사회담론, 혹은 전환담론의 키워드로서 주목받아 왔다(De Angelis, 2019; 권범철, 2020; 이승원, 2019). 특히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도시가, 다양한 커먼즈를 종횡하고 상품화하면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Huron, 2015; 박인권 외, 2019).

그러나 도시 커먼즈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들은 커먼즈가 자원, 공동체, 제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오스트롬(Ostrom, 1990)의 문법에 의지하는 한편, 오스트롬의 이론만으로는 깔끔하게 이해되지 않는 도시 공간의 커먼즈를 “전통적 커먼즈”와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많은 커먼즈 연구자들이 커먼즈가 자원이라기보다는 실천이며, 공동체·자원·실천은 현실에서 복합물로서만 존재한다는 점, 무엇보다 커머너·되기 없이 커머닝은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권범철, 2020; Han & Imamasa, 2015; Mies, 2014; Singh,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공동체)와 객체(자연 혹은 자원)라는 커먼즈의 기존문법에 언어적으로 기댄 현재의 커먼즈 담론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법을 강화하며 커먼즈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삶을 재생산해 온 집합적 살림살이의 양식이며 사회적 관계이자 특정한 감각을 재생산하는 주체성의 생산양식임

을 망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Graeber, 2011; Linebaugh, 2012; Federici, 2013).<sup>1)</sup>

또한, 공동체를 커먼즈의 기본 단위로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라는 식의 선입견과 쉽게 연결되고,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시키면서 공동체를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 가족이나 빗장 공동체들처럼 내부적으로 커먼즈를 구성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심각한 갈등 없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Egerer & Fairbairn, 2018; Unnkrishnan & Nagendra, 2015).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라는 소박한 구분을 넘어서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가 세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우리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집합체, 혹은 특정한 감각과 주체성을 생산하는 공동체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르페브르(Lefebvre, 2003)는 1970년대에 이미 도시적인 것이 인구가 집중된 공간이나 건조 환경의 확장이 아닌, 산업적 생산양식과 다른 생산양식의 전지구적 확장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라고 선포했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전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삶정치적 생산의 문제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측면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 2009)의 이론과도 뚜렷이 공명한다. 본 논문은 르페브르와 하트/네그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적 커먼즈를 재정의하고 70년대 서울에서 만들어진 도시적 커먼즈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도시 커먼즈(the urban commons)” 담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커먼즈 담론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주체와 객체, 개인과 공동체라는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2)</sup>

---

1)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은 커먼즈의 담론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근대적 사적소유제도의 문제를 지울 뿐 아니라 커먼즈가 자본과 국가와 어떤 길항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은 채 커먼즈를 제3의 영역으로 취급한다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정영신, 2016을 참고할 것).

2) 본 논문이 “도시 커먼즈” 대신 “도시적 커먼즈”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시적 커먼즈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르페브르의 “도시적인 것(the urban)”과 하트와 네그리의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메트로폴리스(the metropolis as the common)”라는 개념에 기반해 도시적 커먼즈를 재개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커먼즈라는 개념의 의미를 다시 점검하고, 커먼즈가 자본과 국가에 선행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다양한 방식인 동시에, 자본과 국가 이후를 구성하는 실재적 운동이라는 두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는 르페브르와 하트/네그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적인 것”과 “도시적 커먼즈”를 재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시적 커먼즈는 경계 지워진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 혹은 인구와 자본이 포화된 지역으로서의 도시 내에 존재하는 커먼즈가 아니라, 시골과 도시의 차이를 지우고 섞으며 벌어지는 압도적인 “행성적 도시화”와 그것이 반영하는 우리시대의 지배적 노동과정에 뿌리내린 커먼즈, 즉 이미 생산되고 있는 커먼즈인 동시에 커먼즈를 둘러싼 여러 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삶정치적 투쟁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본고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공동체와 커먼즈,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공동체를 커먼즈의 기본 단위로 파악하여 자본주의와 대립시키는 기존 커먼즈 문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하며 근대적 국가공동체가 구성되던 전후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빈민여성들이 도시적 커먼즈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70년대 도시빈민여성들이 만든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감각들이 부딪치는 도시적 커먼즈의 조건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고 분할되는 방식을 재발명하는 도시적 주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

(the urban commons)를 도시 내의 커먼즈(communs in the city)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도시적 커먼즈는 도시 내의 커먼즈가 아니라 도시적인 것(the urban)으로서의 커먼즈를 지칭한다. 대도시 안에서도 다양한 공동체적 커먼즈가 만들어지듯이 농촌에서도 아이들이 부딪치는 교통공간으로서의 도시적 커먼즈는 생성되고 있다.

## 2. 새로운 주체성 생산양식으로서 도시적 커먼즈

### 1) 커먼즈의 두 차원: 삶과 운동

국내의 많은 문헌들이 커먼즈를 공동자원, 혹은 공유재라고 번역하는 대신 영어의 음역을 차용하고 있는 것은, 커먼즈가 공동의 자원이나 재화라는 말로 포착되지 않는 훨씬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명사 “커먼(common)”의 복수형인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커먼즈는 어떤 것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사회적인 관계와 실천에 내재한다 (Caffentzis & Federici, 2014). 즉,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물은 그 자체로는 상품도 커먼즈도 아니다. 물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상품이 되거나 커먼즈가 된다. 둘째, 인류역사상 커먼즈는 무수히 다채로운 구체적인 살림살이의 양식들로서 존재했다(Graeber, 2008). 그것이 커먼즈가 복수형, 즉 공통적인 것‘들’인 이유이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Graeber, 2011)가 정의하는 공산주의(communism)라는 개념은 커먼즈가 특정한 관계에 기반한, 인류학적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온 생산양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레이버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혹은 친한 친구들이 서로에게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한다. 그레이버에 의하면 순수하게 공산주의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사회란 어디에도 없으며, 공산주의는 위계(hierarchy)와 등가교환(reciprocity)이라는 또 다른 도덕원리들과 섞여서 존재해 왔다.<sup>3)</sup>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관계라면, 등가교환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거래방식이다. 한편 위계는, 봉건영주와 농민 사이의 관계가 그렇듯이 선례에 의해 작동한다(Graeber, 2011).

계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로서의 공산주의는 언제나 “모든 사회 시스템”의 기본이었으며 우리들이 “보다 커다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탕이었다는 점이다. 즉,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인간 사회성의 기초”로서 존재해 왔다(Graeber, 2011: 96).<sup>4)</sup>

커먼즈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장대하고 다채로운 역사를 갖는다. 인류학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어떻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특정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고유한 방식의 세계짓기(worlding)을 통해 삶을 재생산해 왔는지를 보여준다(Graeber, 2001; Malinowski, 1920; Mauss, 1925; Polanyi, 1944). 무수히 다른 커먼즈의 체계들이 그레이버(Graeber, 2001)가 말하는 “수 천 개의 우주들”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관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커먼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놓인 환경 속에서, 고유한 생태정치적 방식으로 그 환경과 관계하며 집합적으로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조직하고 삶을 (재)생산해 온 무수히 다양한 삶의 생산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Graeber, 2011; Marx & Engels, 1970a; Caffentzis & Federici, 2014; Linebaugh, 2019)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를 짓고 살림을 꾸리는 지배적인 도덕원칙이 전복되었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영국에서 탈-커머닝(discommoning)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사유화(privatizatio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배적인 도덕경제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감각을 얼마나 바꾸었는지에 관한 생생한 사례이다(Linebaugh, 2019: 315). 등

---

4) 그레이버의 정의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정치적 기획, 혹은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고 언제나 존재해 온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자 커먼즈를 구성하는 관계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Marx & Engels, 2010)는 공산주의를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도 그레이버는 그것이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몰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유재산의 폐지란 내 것과 네 것을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태도, 즉 “능력과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나눈다”는 원칙에 의거해 작동하는 모든 관계/순간들을 말한다.

가교환의 원리가 지배적인 도덕원칙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적인 관계는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이 과정에서 커먼즈는 “포식자 자본주의 체제에 둘러싸이거나 종속될 준비가 된 환경 속에서 ……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De Angelis, 2017: 33). 다양한 물질적·사회적 커먼즈를 종횡하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우리들의 “감각마저 …… 식민화한다”(171).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커먼즈는 또 하나의 의미, 혹은 차원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상품화 과정과 종횡에 대항하는 관계이자 실천이라는 차원으로, 커먼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미래에 달성할 목표가 아닌) 현재적인 운동으로 나타난다(Dauvé & Martin, 2015; Endnotes Collective, 2010). 마르크스와 엥겔스(Marx & Engels, 1970)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사물의 현 상태를 폐지하는 실재적 운동”이다.

커먼즈를 자본주의적 상품화 과정과 종횡에 대항하는 실재적인 운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두 가지 측면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커먼즈는 공산주의적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집합적 삶의 양식이며 이는 근대 국가와 자본에 선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양식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인(=커먼즈적인) 관계와 이에 내재한 감각들이라는 점이다. 즉, 커먼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하는 것과 다른 주체들 및 관계를 생산하는 생산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Caffentzis & Federici, 2014; Graeber, 2013 Marx & Engels, 2010; Han & Imamasa, 2015).

둘째, 자본과 국가에 선행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세계에는 무수히 다양한 커먼즈가 있지만, 커먼즈가 반드시 해방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Caffentzis, 2010; De Angelis, 2013). 반대로, 그레이버(Graeber, 2011: 1)가 지적했듯이, “공산주의적 관계는 종종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되어버리기 쉽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능력과 필요가 필연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는 공동체, 협력, 보살핌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으며(Barman, 2016; Dowling & Harvie, 2014; Vrasti, 2011), “사회적 자본”, “공유경제”, “공동체” 등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카펜치스(Caffentzis, 2010)가 “자본주의적 커먼즈”라고 부르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권범철, 2019도 참조할 것).

자본주의는 다른 모든 생산 양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협력”의 한 형태로서(De Angelis, 2007: 36), 마르크스(Marx, 1973: 15)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개인의 생산”이라고 부른 것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에 봉사하는 커먼즈를 만든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위한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집합적 기계라는 통찰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개념들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개체와 공동체는 대립하는 무엇이 아니며 개체화는 그 자체로 “필연적인 사회적 과정”, 즉 집합적인 과정이다(Read, 2011: 116~119).<sup>5)</sup>

이런 관점에서 나는 공동체, 자원, 실천을 커먼즈의 기본 요소로 파악하는 널리 알려진 커먼즈의 문법을 재고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본주의 내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집합 내부의 배열을 바꾸고 자본주의가 만드는 주체와 다른 주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적 커먼즈와 다를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침식하는 커먼즈를 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커먼즈에서 공동체가 불필요하다거나, 공동체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커먼즈들이 반동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데안젤리스(De Angelis, 2003: 1)가 말했듯이 커먼즈는 공동체, 즉 “시장 형태로 축소되지 않는 상호 원조, 연대 및 교류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유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라는 커먼즈의 기본적인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공동체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규범이나 습관, 신념을 공유하는 닫힌 그룹이 되어버릴 때, 공동체들은 (자본주의 내의 가족이 그러

---

5) 발리바르(Balibar, 2018: 8)의 표현을 빌자면 자본주의가 문제적인 것은 우리를 관계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소외”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한편, 데안젤리스(De Angelis, 2010)는 공동체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로 구성되는 집단임을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자본축적이라는 이해관계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듯이) 내부에서는 공산주의적 관계를 통해 공동체로 지속될지언정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자원을 독점/사유화하는 개체(individual)로 작동하기 시작한다.<sup>6)</sup>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커먼즈의 실천은 “되기(becoming)”의 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Singh, 2017), 커먼즈에서 공동체는 결코 미리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커머닝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촉진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Mies, 2014; Han & Imamasa,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롬에 의해 구축되고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기존의 커먼즈의 문법은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개인과 공동체를 나누는 언어적 용법에 기반함으로써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적 인식론을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커먼즈 문법은 커먼즈라는 용어를 지역 공동체들(많은 경우 닫힌 공동체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천연자원이라는, 전통적 커먼즈의 이미지와 강하게 결부시키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커먼즈, 혹은 시골의 커먼즈와 다른 “도시 커먼즈”를 상징하는 일종의 분류체계를 작동시킨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운동과 연결되며 스스로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삶의 기술과 사유를 커머닝해 온 사파티스타의 사례가 옹변적으로 보여주듯이, 행성적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토착적 커먼즈(indigenous commons)”의 존재방식 또한 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7)</sup>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커먼즈가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문화적·정치경제적이고 지리적인 지층 속에 뿌리내리고 자라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

6)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두 가지 다른 벡터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체들이 공동성을 만들어내며 공동체를 생산하는 정치적인 공간/과정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공동체는 공동체 내부를 지배하는 상식적인 삶의 방식/공동감각이 결정된 공간, 랑시에르(Rancière, 2010: 100)가 “치안”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지배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스타브라이드(Stavrídes, 2016: 32)가 지적했듯이 공유된 신념, 규범, 습관들에 의해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둘러싼 계쟁과 갈등이 침묵당할 때…… (공동체는) 과정이 아닌 규범화된 사회적 보편”이 된다.

7) 사파티스타의 국제연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해서는 김은규(2005), 권영준역, 멕시코/디아나다미안(1998)등을 참조할 것.

점이다. 무수히 다채로운 공산주의적 관계들과 그에 기반한 커먼즈의 체제들이 존재해 왔으며, 각각의 커먼즈-관계들은 그 안에서 특정한 가치관과 감각을 가진 주체들을 만들어왔다. 발리바르(in Curcio & Özselçuk, 2010: 324)가 지적하듯이 “토대와 상부구조”만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차이들” 또한 “절대적으로 복수인 주체들”을 생산한다. 한편, 행성적 도시화 과정은 계속해서 그 무수한 차이들을 (많은 경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면시킨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계지워진 공동체-커먼즈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시민적인 공통감각을 구성할 수 있을까? 르페브르(Lefebvre, 2003)의 “도시적인 것(the urban)”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현실이 배태하고 있는 급진적 잠재력을 현행화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의 요청이다.

## 2) 도시적인 것과 커먼즈, 그리고 도시적 커먼즈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 홍콩의 우산혁명과 대만의 해바라기운동 등 2010년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점거운동과 도시 봉기의 물결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도시”로 향하게 했다. 도시 정치의 문제(Barnett, 2014; Merrifield, 2013),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도시운동이 구성하는 새로운 공간전략(Mayer, 2013), 사회정의 운동의 장으로서의 도시의 전략적 의미(Leontidou, 2006; Nicholls & Beaumont, 2004), 도시운동의 공간들(Hodkinson & Chatterton, 2006; Leontidou, 2006),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에 대한 권리”(Harvey, 2008, Marcuse, 2009; Mitchell, 2003)와 도시(적) 커먼즈(Borch & Kornberger, 2015; Dellenbaugh et al., 2015)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도시운동을 진행하고 둘러싼 논의 대부분이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구획된 공간으로서의 도시, 시골과 구분되는 도시, 밀도와 규모에 의해 정의되는 도시(city)와 구분하지 않는다. 도시운동을 도시 내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인식론은 도시운동을 둘러싼 논의를 70년대 카스텔(Castells, 1977)이 던졌던 “도시적 질문(the urban question)”, 즉 어떻게 하면 운동이 도시에서 보

다 큰 단위로서의 국민 국가, 더 나아가 글로벌한 장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는 가라는, 수직-도량적 스케일 개념에 기반한 질문으로 되돌린다(Miller & Nicholls, 2013 참조).<sup>8)</sup>

도시를 구획된 지리적 단위로 사고하는 강력한 인식론적 경향을 비판하며 브레너와 슈미트(Brenner & Schmid, 2015)는 “도시적인 것의 새로운 인식론(a new epistemology of the urban)”을 제안한다. 그들에 의하면 도시적인 것은 경계가 명확한 거주 단위가 아니라 다차원적 실천에 의해 매개되는 행성적이고 얼룩덜룩한 과정이며, 무엇보다도 “집단적인 프로젝트”이다(178). 즉, 도시적인 것은 국가나 자본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도화될 뿐 아니라, 도시공간을 전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적인 실천과 도시적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급진적인 사회적·정치적 변용의 잠재성을 표현”한다(168).

(도시는) 언제나 그것의 이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되고 변용된다. 그들은 새로운 형식의 경험과 연결과 실험, 즉 새로운 형식의 삶(Lefebvre, [1974] 1991, [1970] 2003)을 창조하기 위해, 도시의 실현되었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집합적이고 사회적 인 이용의 잠재성을 전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논쟁과 모순, 투쟁과 봉기들을 통해 명확해지고, 궁극적으로 일상 생활의 기쁨, 일상성과 드라마를 통해서 실현된다(Brenner & Schmid, 2015: 177).

---

8) 브레너(Brenner, 2000)가 지적했듯이 스케일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정치적으로 경합하며, 역사적으로 변동하는 차원들”이다(Brenner, 200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케일은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가능하는 잣대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운동은 국가와 자본이 강제한 스케일과 그를 둘러싼 수직-도량적 관계(scalar relations)에 저항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즉 스케일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Brenner, 2004; Miller, 2007).

브레너와 슈미드에게 도시적인 것은 “사회공간적인 것이 재구축되는 역동적이고 관계들인 힘들이 펼쳐지는 장”이다(165). 그들이 제창하는 도시적인 것의 새로운 인식론은,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 파악하는 르페브르(Lefebvre, 2003)의 “도시적 혁명(the urban revolution)”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공통체에서 하트와 네그리가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메트로폴리스(the metropolis as the common)를 둘러싸고 펼치는 논의는 르페브르(Lefebvre, 2003)의 주장과 놀랄 만큼 공명한다. 그렇다면, 르페브르, 혹은 하트와 네그리가 말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도시적인 것/메트로폴리스는 과연 무엇인가?

“탈산업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 등 현대자본주의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시각과 논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지대 혹은 불로소득을 통한 자본축적 및, 지대경제의 불로소득 추출(가치이전) 수단으로서의 금융화이다(Fucks, 2012; Srnicek, 2017; Schmid, 2019; Vercellone, 2007). 특히 주택을 비롯한 도시공간의 생산이 과잉축적된 자본의 탈출구이자 수익창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Harvey, 1985; Fernandez & Albers, 2016). 그러면 지대와 금융화를 통해 추출되어 불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 2009)에 의하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구분되던 산업자본주의와 달리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삶 자체가 생산에 동원된다(De Angelis, 2007; Morini & Fumagalli, 2010; 권범철, 2017도 참조할 것). 이런 상황에서 “메트로폴리스”는 생산적 사회의 특권적 형태일 뿐 아니라, 가치포획과 잉여가치축적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사물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곳, 즉 커먼즈가 생산되는 곳인 동시에 금융자본과 지대에 의해 포획, 추출되고 사유화되는 곳이다(Hardt & Negri, 2009; Negri, 2014). 즉, 이들의 논의는 도시적인 것을 경계 지워진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과정을 반영하는 복잡한 삶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르페브르, 그리고 하트/네그리의 논의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르페브르(Lefebvre, 2003)의 도시적인 것(the urban), 그리고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 2009)가 메트로폴리스, 혹은 메트로폴리스화(metropolitanization)이라고 부른 것은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행성적 조건”으로서의 과정이다(Hardt & Negri, 2009: 252). 둘째로, 도시적인 것/메트로폴리스는 잉여의 생산과 착취가 전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반영한다. 도시적인 것은 독특한 생산양식에 기반한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기이며, 농촌적인 것과 산업적인 것 다음에 온다(Lefebvre, 2008: 28; Hardt & Negri, 2009: 154 참조).<sup>9)</sup> 마지막으로, 도시적인 것/메트로폴리스는 다양한 감각과 전략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삶정치적 영토로 나타난다. 그것은 “주체성 생산의 장소”(Hardt & Negri, 2009: 211)로서, 특정한 “생각들, 행동과 삶의 양식”을 생산한다(Lefebvre, 2003: 32). 그렇기에 도시적인 것/메트로폴리스는 그 자체로 커먼즈이자 커먼즈를 둘러싼 전장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적 커먼즈(the urban commons)는 시골과 다른 도시지역의 커먼즈가 아니다. 휴론(Huron, 2015)은 도시적 커먼즈를 낯선 이들과 함께 부족한 자원(포화된 공간)을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도시를 구획 지어진 지리적 스케일로 정의하는 과거의 인식론으로 회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적 커먼즈가 어떻게 전통적 커먼즈와 다른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동체가 자원을 관리한다는 오스트롬(Ostrom, 1990)의 근대적 인식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적 커먼즈는 사회 전체에서 잉여가 생산되고 착취되는 현재의 생산양식에 뿌리내린 커먼즈이며, 객체가 아닌 주체들 스스로가 복수의, 결합하는 과정이 되는, 다층적인 삶정치적 영토(terrain)이다.

르페브르(Lefebvre, 2003: 118)가 기술했듯이 도시적인 것을 특징짓는 것은

9) 르페브르와 하트/네그리는 공히 마르크스(Marx, 1976)가 “노동의 실제적 포섭(real subsumption)”이라고 부른 것이 사회의 실제적 포섭으로 이행했음을 발견한다.

“만남, 집합, 즉흥성”이다. 커먼즈로서 도시적인 것의 특이성은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마주침으로 인한 근본적인 이질성에 있다. 즉, 도시적인 것은, 규범과 감각을 공유한 작은 공동체와 구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사리노(Casarino, 2008: 12)가 기술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특징이야말로 도시적 커먼즈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공동체라는 특징이 아니라 소통(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정의된다.”

전 세계적 도시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타자들, 즉 우리와 다른 감수성과 신체, 신념들과 마주친다.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마주침은 폭력적으로 일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나고, 그러한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울타리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들을 한 곳에 불러오고 뒤섞는 도시적인 것은 급진적 도시적 커먼즈의 가능성 또한 배태하고 있다. 즉, 도시적인 것은 타자와의 우발적인 마주침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의 경계, 규범, 정체성을 깰 것인가의 문제이며, 어떻게 스스로를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갱신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엔클로저(울타리치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Stavrides, 2016 참조).

### 3.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본 논문은 르페브르, 그리고 하트/네그리의 논의에 기반하여 도시적 커먼즈의 재개념화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개념화는 무엇보다 필자가 서울과 도쿄의 불안정 노동계급(the precariat)의 예시적 운동 현장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전통적인 커먼즈의 단위였던 마을/무라가 어떻게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 속에서 변형되고, “공동체”가 각각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지에 관한 문헌연구에도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 절에

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근대 이전 커먼즈의 기본단위였을 뿐 아니라 근대적 민족국가의 기반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히 해체되던 전통적 공동체의 밑바닥에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고 있던 근대적 시민사회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삶을 영위했던 도시빈민여성들이 어떻게 도시적 커먼즈의 주체로 등장했는지 살펴본다.

### 1) 공동체의 근대화: 마을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마을(촌락)과 강하게 연결되어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왔다. 한편에 강한 내부적 위계를 가진 폐쇄적이고 답답한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넉넉하고 인심 좋은, 전근대적 도덕경제가 환기시키는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모순된 이미지는 한일 양 사회의 마을 공동체가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복잡한 변화과정을 반영한다.

봉건권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폭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근대 이전의 일본과 한국에서 마을(일본어로는 무라)은 중앙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단위였다(Befu, 1965; 1967; 정승진, 2008; 주강현, 2006; 하승우, 2010). 한편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연구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가 사람들이 노동력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집단적으로 조직하는 단위였음을 보여준다(정근식·김준, 2004; 권병욱, 2017; 直江, 1949; 和田, 2006). 클리포드 기어츠(Geertz, 1963)가 “빈곤의 공유(shared poverty)”라고 명명한, 혹은 스콧(Scott, 1977)이 도덕경제(moral economy)라고 불렀던 상호호혜의 가치체계 아래에서 농민들은 집합적, 협력적 행위를 통해 마을 공동체(village community)를 형성했다(정승진, 2008도 참조). 즉, 근대 이전의 마을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한 커먼즈의 기본 단위였다.

중요한 것은, 마을이 국가에 대항해 확보한 자율성의 수준이 다양했던 만큼

이나 마을 공동체의 형식, 혹은 각각의 마을 안에 개인들이 위치한 방식들 또한 다양했다는 점이다(Scott, 1977; Wolf, 1957). 마츠모토와 정승진(2008)이 수행한 일본과 한국의 촌락구조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원시적 축적과정이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본의 경우, 마을 구성원들은 일본 학자들이 “자치촌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직함으로서 중앙정부 및 시장의 발달에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강하게 결속된 “닫힌 공동체(closed corporate communities)”의 구조가 발달된다(Befu, 1965; 마츠모토·정승진, 2008).

한편, 개항 이래의 대외적 위기와 식민지 경험을 통과하는 동안 한국 마을은 “닫힌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실제로 한국의 마을은 가족제도나 토지 소유권 개념을 둘러싸고 일본보다 훨씬 “열린마을(open villages)”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정승진, 2008). 특히 한국농촌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는 일본과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사회현상인데, 마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계는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결사체였다(안승택, 2014; 김필동, 1992). 그뿐만 아니라 촌락의 지리적 범위와 동계의 사회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마을의 여러 공적 업무가 여러 임의적 결사체로서의 수많은 계들에 의해 처리되는 등 마을은 분산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비해 닫힌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일본에서도 마을의 구조는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일본의 촌락구조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동북지방의 마을들이 부계출신의 친족이 하나의 도조쿠(同族)를 형성하고, 장남이 본가를 이어받는 이에(家)의 연합, 즉 도조쿠(同族)제에 기초한 경직된 위계구조를 갖고 있었던 반면 서남지방의 어촌마을들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조합이 마을의 공동작업이나 축제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구조의 연령단계제에 기반했다(上野, 1986; 福武, 1949; 江守, 1976). 즉, 마을은 커먼즈의 기본 단위였지만, 공동체의 구조, 혹은 마을 내부에서 개인들이 공동체와 관계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마을이 근대 국가 건



설의 말단단위로서 동원됨으로서 근대적 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근대민족국가 만들기는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천황을 대가장으로 삼고, 국민을 그의 적자로 보는 이른바 “가족국가”의 수립으로 표현된다(Garon, 2010). 메이지 시대 내내 다양한 법적·이념적 수단이 가족국가의 수립에 동원되었는데 우선 동북지방 마을의 위계적인 도조쿠제가 호적법을 통해 법제화됨으로서 각 집의 가장인 호주가 국가 행정 조직의 최말단으로 계열화되는 가부장적 가족국가가 법적으로 수립된다(임경택, 2004; Isono, 1988). 동시에, 근대가족국가로서의 일본사회가 공유해야 할 도덕과 시민의 가치를 만드는 강력한 이념적 수단으로 “민족 공동체”가 동원되는데(Borovoy, 2016; Gluck, 1985), 특히 일하는 아버지와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라는, 강력한 젠더 이미지에 기반 한 가족상이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Kazue, 1994).

한편, 보다 평등하고 열린 마을 구조였던 연령단계제의 경우, 에도시대 후기부터 이미 도당금지책의 일환으로 금지되기 시작했고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젊은이들의 조합을 금지하거나 교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심해졌다. 메이지 말기의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한 “지방개량운동”과 함께 자발적이었던 마을조직은 지방의 행정단위로 흡수되고 국가의식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확산의 모태로 변화한다(임경택, 2004; Sato, 1972; Smethurst, 1974).

한국의 경우 자치적 전통 촌락의 구조는 식민지 시기에 체계적으로 파괴되는데, 이는 농촌이 경제적으로 피해를지는 시기와도 겹친다(김농노, 2007; 하승우, 2010; 정연태, 1990; 지수걸, 1999). 이어지는 한국전쟁은 농촌 해체를 더욱 심화시켰는데, 본 글의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 농촌의 마을공동체들은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선거라는 근대적 기제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재정비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계층적 친족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수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반민들의 촌락자치조직으로 운영되던 동계 등은 전쟁으로 인해 극심하게 침체되거나, 마을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해 유교적인 도덕률을 강화하기 시작한다(이

용기, 2014). 또 하나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들이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일부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 새마을 운동에서 ‘근대화’의 구호를 국가/민족 담론과 적극 결합하여 농민을 근대적 주체로 구성한다(고원, 2004).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을은 국가의 말단이자 선택적 인센티브제를 채택한 국가의 전략에 의해 경쟁의 단위로 전환되었다(한도현, 1989).

정리하자면, 일본과 한국에서 커먼즈의 기본 단위였던 마을 공동체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과정에서 그 자치적 측면이 무력화되고,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일본의 경우 동족제 마을의 계층질서를 바탕으로 천황이, 아들(가장)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가족국가의 이념 위에 대단히 균질적인 시민사회가 구성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에 대해 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라타니(2018)는 일본사회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 혹은 개인주의를 경협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사회=공동체와,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한국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보다 복잡한 맥락에서 사회운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빈곤은 심화되고, 전통적 커먼즈의 해체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진 무수한 소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이주한다. 이들은 1970년대 광범위한 판자촌을 형성하며 도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위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당시의 엄혹한 정치상황에서 도시빈민의 비참한 현실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종교인들이었다. 종교계는 솔 앨린스키(Alinsky, 1941)의 공동체 조직 이론(Community Organization Theory)에 기반해 도시빈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민운동을 조직한다(빈민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2018). 즉, 한국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회운동의 기반에 도입되고 머물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둘러싼 보다 복잡한 긴장 관계를 만들었다.

물론, 공동체나 커먼즈라는 단어가 국가, 그리고 사회 운동의 담론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자리매김 되건, 공동체와 커먼즈는 일본과 한국의 삶과 운동의 구체적인 장소들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근대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던 시기, 양 공동체 모두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도시빈민여성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와도 분기하고 근대국가가 강요하는 지배적인 삶의 양식과도 다른 방식으로 커먼즈를 만든 도시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커먼즈와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도시적 커먼즈의 실천적 함의를 둘러싼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2)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공동체의 가장자리에서 등장한 도시적 커먼즈/커먼너

2017년 발간된 『마을 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1970~1990년대 민중의 마을 만들기』(이하 『원형』)(빈민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2018)는, 한국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도시화를 진행하던 시점에 이미 전통적 커먼즈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통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커먼즈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sup>10)</sup>

1960년대부터 무수한 이농민들이 먹고 살기위해 무작정 도시를 향했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광범위한 도시빈민층을 형성한다(박진도, 2003). 그들은 농촌의 해체와 함께 전통적 커먼즈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자본관계에는 편입되지 못한 잉여 노동력이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 서비

---

10) 김정원(2014)은 1970년대 초 이래 빈민밀집지역 주민운동의 공동체 조직화를, “사회적경제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자생적인 사회적경제실천으로 파악하는 한편, 9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 담론의 부상 또한 이런 주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제기했음을 지적한다.

스로부터도 배제된 존재였다. 도시의 판자촌에 알몸뚱이로 던져진 이들 도시 빈민은 그동안 삶의 안전망이 되었던 마을, 친지, 이웃과 같은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농촌 공동체에서 당연했던 삶의 감각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인류학자 브란트(최협, 2012)는 한국 농촌공동체가 서로에게 관대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평등한 공동사회의 논리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마을도덕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논리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논리에 익숙하던 농민들이 도시 판자촌에서 겪는 가치관의 혼란을 지적한 바 있다. 시골마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상부상조나 호혜성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면서 극심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되고, 혈통이 있건 없건 이웃과 상호 교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던 전통적 공동체의 감각은 바로 이웃이 경제적인 영역의 경쟁자가 되는 도시의 현실 속에서 침식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친척과 이웃에 대한 유대의 의무에서 벗어나 혈연에 기반한 핵가족을 최우선의 생존단위로 인식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전략을 짜야만 했다(Kim, 1995도 참고할 것). 즉, 당시의 판자촌은 서로 다른 감수성들과 논리가 충돌하는 복잡한 공간이었다(최협, 2012; Han, 2021).

앞서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도시빈민의 극심하게 불안정하고 비참한 생활에 주목하고,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기반을 재구성하도록 돕기 위한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은 종교계였다.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는 미국에서 발달한 공동체조직이론(Community Organization Theory)에 기반해 “빈민선교자”를 선발해 훈련(1968~1971년)시켰고, 훈련생들은 빈민지역에 들어가 주민의 일원으로 함께 살면서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지역운동의 주체로 만들었다(『원형』: 39). 지역주민운동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목표는 “가난한 주민들이 자유적이고 자율적인 힘을 갖게끔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원형』: 43). 주민운동은 실험과 생산 공동체들과 같은 공통적인 삶의 기반, 즉 커먼즈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로 이어진다(김정원, 2014도 참고할 것).

즉, 당시 도시빈민층에서 전개된 주민운동은 커먼즈를 박탈당한 채 도시에 던져진 도시빈민층 내부로부터 커먼즈를 재조직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원형』은 이시대의 주민조직 운동의 원칙과 방법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당시의 커먼즈 운동의 계보 안에 이미 “공동체”라는 말로는 전부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감수성의 도시적 커먼즈 운동이 존재했다는 점, 게다가 그러한 운동의 주체가 도시빈민 내에서도 가장 억압된 존재로서 가장 비가치화되고 비가치화된 노동에 내몰렸던 도시빈민 여성이었다는 점은 제대로 언어화되어 있지 않다.<sup>11)</sup> 본 절에서는 난곡 도시빈민주부들이 만든 난곡희망협동조합을, 흔히 한국 마을공동체운동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복음자리 공동체와 비교하며 전자가 어떻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와 다른 도시적 커먼즈를 형성했는지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sup>12)</sup>

우선 복음자리 마을을 살펴보자. 현재 시흥시에 위치한 복음자리 마을은 1977년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한 마을이었다. 제정구와 정일우(존 데일리) 신부, 김영준과 박재천 등 헌신적으로 마을공동체운동을 펼친 활동가들이, 독일의 천주교 후원 재단에게 돈을 빌리고 주민들을 설득해 시작했다. 입주 이듬해 복음신용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이어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했다.

모든 물질적·사회적 커먼즈에서 분리된 도시빈민들이 핵가족을 생존의 단위로 삼아 자본주의적 논리를 내면화하던 상황에서 도시선교위원회는 공동체 주민운동을 통해 빈민들의 삶의 공통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1) 근대화시기 여성들의 노동이 어떻게 비가치화, 비가치화된 형태로 자본축적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Cho & Koo(1983)을 참고할 것

12)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의 커먼즈운동으로서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Han(2021)을 참고할 것

사용된 “공동체”라는 단어는 이념적으로는 수입된 개념이었지만 실천적으로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마을에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경험했던 삶의 모양새, 즉 전통적인 공동체의 이미지에 기대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복음자리 마을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은 마을 잔치와 여흥, 즉 함께 놀고 어울리는 자리가 어떻게 이곳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공동체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만들어지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젠더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가부장 공동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원형』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모든 일을 작은공동체 식구와 수녀들, 일당을 받고 참여한 주민들이 해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오랜 시간 일한 사람은 공동체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생산 활동을 하는 틈틈이 공동체원들의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을 챙기는 가사 노동의 짐도 지고 있었다. ……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나와 보면 마루방 여기저기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어떤 날은 담뱃재가 수북한 재떨이와 빈 술병만 나뒹굴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밥과 술안주를 차려내는 일은 여성 공동체 식구들의 몫이었다(빈민지역운동사 발간 위원회, 2018: 104~109).

즉, 복음자리의 사례는 빈자들이 자본과 국가 바깥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성들의 비가시적 노동에 의지하며 가부장적인 위계를 재생산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하 난협)은 1976년 조직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료협동조합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난협은 2,200세대의 도시빈민이 참여한 거대한 주민조직이었으며, 난협의 역사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한재량(2018)이 말하듯이 “가장 절박한 의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 조직이었다. 난협은 내부와 외부가 분명히 구분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션이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공동체를 닮았던 복음자리

마을과는 다르다. 난협역의 역사 역시 도시선교위원회에서 훈련받은 활동가와 함께 시작되지만, 젊은 여성활동가였던 김혜경은 판자촌의 또래 주부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며 남성리더가 이끌던 공동체주민운동들과는 상당히 다른 정동의 주민운동을 만들었다.

난협이 도시빈민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 국수를 먹기 위해 만든 국수계였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60~70년대의 판자촌에 대한 민족지에는, 도시빈민들여성들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삶을 더 선호했다는 기록들이 자주 나온다(최협, 2012). 농촌사회에서 자신들이 유지하던 가부장적 권위가 경제적인 곤란에 의해 침식되는 것에 심리적으로 저항하며 전통적 가장의 역할을 강조한 남성들에 비해, 도시적인 것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한 것은 여성들이었다(Han, 2021). 경제적으로는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강한 혈족 관계와 전통적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도시에서 덜 종속적이고 예측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적더라도 자신의 노동에 기반한 경제적인 수입이 가능해진 여성들은 도시가 갖고 있는 평등한 감수성을 보다 빠르게 흡수한 것이다. 특히 도시빈민여성들이 경험하는 도시적 즐거움/관계의 중심에는 다른 여성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활동인 계가 있었다. 도시빈민여성들에게 계는 작은 돈이나마 어떻게든 불리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들이 “세상이야기”를 하고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 세계가 확장되는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했다(Han, 2021).

난협은 여성들이 도시에서 마주친 계로 상징되는 평등한 교류의 즐거움을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방향으로 엮어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난협의 기록, 혹은 주민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재미” 혹은 “신”이다.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도시빈민여성들은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난협 활동은 “재밌고” “신이 났다”고 말한다(한재량, 2018). 난협을 자긍심과 즐거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는 복음자리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활동가 박재천의 아내 이현옥의 “그냥 살아냈다”, “지금 살

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회고(빈민지역운동발간사위원회, 2018)와는 뚜렷이 다른 정동에 기반한다. 난협을 만든 여성들은 쓸데없이 돌아 다닌다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바지가 찢어져서도 츄리닝을 빌려 입고 충회에 참석한 기억을 이야기한다(한재량, 2018). 즉, 그녀들에게 있어 난협은 “매 맞고 하라고 하는 대로 살던 엄마가 아저씨(남편)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공간, 그럼으로써 “아빠들도 결국, 밤 열시가 되어도, 통금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모이는 거에는 암소리 안하게 되는” 변화의 공간이었던 것이다(김혜경 인터뷰).

도시빈민여성들은, 서로 다른 논리와 감수성이 부딪치는 판자촌에서 평등한 도시적 감수성을 더 빨리 채득했다. 그들이 이러한 감수성을 자본주의와 다른 방향, 즉 공생공락의 방향으로 짜나갈 수 있었던 것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주민운동에 투신한 활동가 김혜경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엄마가 바깥 생활 안하는게 답답”했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나간 성당에서 북미의 협동조합 운동의 이야기를 듣고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김혜경의 삶의 궤적 또한(김혜경 인터뷰), 새로운 것들과 마주치는 도시적 조건이 어떻게 사람들이 타자와 관계 맺고 존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 즉 주체화의 과정을 촉발하는지 보여준다.

#### 4. 마치며: 중동태로서의 도시적 커먼즈, 혹은 도시적 커머너 되기

라인보우(Linebaugh, 2008: 44)에 따르면 커머닝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활동이자 관계이며, 구체적인 노동환경과 “노동과정에 뿌리내린 것이다. 그것은 들판과 고원, 숲과 습지와 해안의 고유한 실천들에 깃들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고유한 노동-실천은 어떤 것일까?

르페브르(Lefebvre, 2003: 41)는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일부가 아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의 선언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세계적 규모의 혁명을 조직해야한다는 낡은 관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도시는 이미 집합적으로, 즉 커먼즈로 생산되고 있다. 즉, 도시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상품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곳, 즉 커먼즈가 생산되는 곳인 동시에 자본이 커먼즈를 포획하고 사유화하는 곳이기도 하다. 라인보우(Linebaugh, 2008: 44)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시야말로 우리 시대의 “들판, 고지대, 숲과 습지, 해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먼즈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본에 의해 포획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공동체와 커먼즈를 출구전략으로 체제화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집, 혹은 자기 공동체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적 커먼즈의 급진적 가능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나누는 방식, 타자들과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미시적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서만 실현될 것이다. 1970년대 한국의 도시빈민은 전통적 커먼즈에서 분리된 채 내던져진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핵가족이라는 생존단위를 더 강화해야만 했다. 그러한 도시빈민 내부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도시빈민여성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와도,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방식과도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 혹은 커먼즈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먼즈와 도시적 커먼즈를 둘러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난협에서 커먼즈가 구성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도시빈민 여성들에게 함께 관리하거나 나눌 수 있는 자원은 애당초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난협이 만들었던 핵심적인 커먼즈는 가족,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 도시빈민여성들이 만든 커먼즈는 이웃과 가족처럼 지내는 마을 공동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김혜경, 인터뷰)는 생각으로 타인과 함께 하는 더 넓은 안전망을 짜고자 했다. 즉, 난협의 실험은 개인과 공동체간의 거리를 새롭게 직조함으로써 도시에서 서로를 돌보는 새

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판자촌이 상징하는 도시적 상황이다. 새로운 감각들이 마주치고 섞이는 도시적 상황에서 도시빈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던 사람들 간의 거리와 감각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서 도시적 커머너로 등장했던 것이다.

“중동태(middle voice)”에 대한 벤베니스테(Benveniste, 1971)의 논의는 주체(공동체)가 객체(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시적 커먼즈, 더 나아가서는 근대적 인식론을 너머 커먼즈의ダイナ미즘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지금은 사라진 영어의 중동태는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니고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태 동사였던 그리스어 *chresthai*는 ‘사용하다(to use)’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동사가 지시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다른 것들과의 사이에 있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시한다(69). 아감벤(Agamben, 2014)은 중동태가, 특히 주체라는 관점에서 인식론의 급진적인 전환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중동태에서 주체는 행동에 우선하지 않는다. 주체는 오히려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동사(행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이다(Agamben, 2014: 68). 70년대 도시빈민여성들이 만든 실험이 보여주듯이 커먼즈가 언제나 “되기”, 즉 주체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동사이자 수행적인 과정이라면, 그리고 도시적 커먼즈의 조건이 그 과정을 촉발한다면 우리는 도시적 커먼즈를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넘어 중동태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원고접수일: 2022.11.26.

심사완료일: 2022.12.07.

게재확정일: 2022.12.19.

최종원고접수일: 2022.12.22.

**Abstract****From Village Communities to the Urban Commons:  
Rearticulating the Urban Commons from a View of East Asia**

Didi Kyoung-ae Han

This paper rearticulates the concept of the urban commons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ommons and the urban as well as the historical experiences around community and the state in the Japanese and Korean contexts. The widely accepted grammar of the commons premises community, resource, and practice as the basic components of the commons. This is, however, not only strongly connected to the image of traditional commons but also reinforcing the dualist epistemology. The urban is not a bounded territory but a planetary process that erases differences between the rural and the city. Building on Lefebvre's discussion on the urban, the paper argues that the urban common is the common embedded in the labor process of our era, where production and exploitation of surplus occur in the whole society beyond factories. As the commons is constantly captured by capital, the urban common also appears to be the biopolitical struggle over the dominant form of life. Nangok Heemang Medical Cooperative, as the example of the urban commons in Seoul in the 1970s, demonstrates how the condition of the urban commons, where one must encounter others, facilitates the process of becoming, i.e., subjectivation.

**Keywords: commons, the urban commons, village community, Japan, Korea, the urban poor housewives**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2018. 『윤리21』. 도서출판 비.
- 고원. 2006.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 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제69호, 178~201쪽.
- 권범철. 2017.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27권 2호, 119~149쪽.
- \_\_\_\_\_.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9권 3호, 13~61쪽.
- \_\_\_\_\_.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제101권 17~49쪽.
- 권병욱. 2017. 「폴라니의 관점에서 본 마을 공동체의 경제구조 분석」. 《농촌경제》 제40권 1호, 51~73쪽.
- 권영준. 1998. 「세계민중연대로 신자유주의 굴레를 벗자 2: 멕시코/ 디아나다미안 (사파티스타 지원단체 ‘포르마시온 이 카파시다드’ 대표) - 사파티스타는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을 위해 싸운다」. 《사회평론》 제98권 10호, 82쪽.
- 김농노. 2007.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한국사회학》 제41권 1호, 17~49쪽.
- 김은규. 2005. 「미디어와 사회운동: 사파티스타(Zapatista)운동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재구성」.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2권, 33~64쪽.
- 김정원. 2015.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경제: 빈민밀집지역 주민운동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6권, 171~204쪽.
- 김필동. 1992. 『한국사회조직사연구: 계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변동』. 일조각.
- 마쓰모토 다케노리·정승진. 2008. 「근대 한국촌락의 증층성과 일본모델」. 《아세아연구》 제51권 1호, 197~225쪽.
- 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69권, 62~113쪽.
- 박진도. 2003. 「이농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79~101쪽.
- 빈민지역운동사발간위원회. 2018. 『마을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1970~1990년대 민중의 마을 만들기』. 한울.
- 안승택. 2014. 「한 현대 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형성과 공동체 원리」. 《농촌사회》 제24권 1호, 7~44쪽.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사회》 제 29권 2호, 134~174쪽.
- 이용기. 2014. 「전후 한국농촌사회의 재전통화와 그 이면: 전남 장흥군 용산면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3호, 417~465쪽.
- 임경택. 2004. 「일본의 천황제와 촌락사회구성에 관한 사회민속학적 고찰: 이른바 가족국가의 질서와 관련하여」. 《일본사상》 제6권, 57~84쪽.

- 정근식·김준. 2004.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 정승진. 2008. 「20세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한국경제연구》 제22권, 5~27쪽.
- 정연태. 1990. 「1930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 《역사와현실》 제4권 224~264쪽.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제20권 1호, 399~442쪽.
- \_\_\_\_\_.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237~260쪽.
- 주강현. 2006. 『두레: 농민의 역사』. 들녘.
- 지수걸. 1999.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제47권, 16~36쪽.
- 최협. 2012. 『판자촌 일기: 청계천 40년 전』. 눈빛.
- 하승우. 2010. 「식민지 시대의 아나키즘과 농민공동체」. 《OUGHTOPOA》 제25권 3호, 97~126쪽.
- 한도현. 1989. 「국가권력의 농민통제와 동원정책: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연구사.
- 한재량. 2018. 『그 형편에도 함께 하는 게 좋더라: 난곡 희망의료 협동조합 이야기』. 함께 가는 길.
- 直江広治. 1949. 『村の生活, 民俗學研究所編, 民俗學の話』. 共同出版社.
- 和田健. 2006. 「協同労働慣行概念の学史的検討: ‘協業關係’, ‘協同’ 概念への連続性をめざして」. 《千葉大学人文研究》, 34, pp.217~235.
- 上野和男. 1986. 「日本民族社会の基礎構造: 日本社会の地域性をめぐって」. 『日本民族社会の形成と発展: イエムラウジの源流を探る』.
- 福武直. 1949. 『日本農村の社会的性格』. 弘文堂.
- 江守五夫. 1976. 『日本村落社会の構造』. 弘文堂.
- 佐藤守. 1972. 「農村青年集團の展開過程」(Ph.D Thesis). 東北大学.
- Agamben, G. 2014. “What is a destituent pow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2(1), pp.65~74.
- Alinsky, S. D. 1941. “Community analysis and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6(6), pp.797~808.
- Andretta, M., Piazza, G. and Subirats, A. 2015. “Urban dynamics and social movements.” In della Porta, D., and Diani, M.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Movements*(1-20). Oxford University Press.
- Balibar, É. 2018. “Philosophies of the transindividual: Spinopza, Marx, Freud.” *Australian Philosophical Review*, 2(1), pp.5~25.
- Barman, É. 2016. *Caring Capital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tt, C. 2014. “What do cities have to do with democ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5), pp.1625~1643.
- Befu, H. 1965. "Village autonomy and articulation with the state: the case of Tokugawa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5(1), pp.19~32.
- \_\_\_\_\_. 1967. "The political relation of the village to the state." *World Politics*, 19(4), pp.601~620.
- Benveniste, E. 1971. "Active and middle voice in the verb."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pp.145~151.
- Borch, C., and Kornberger, M. 2016.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 Borovoy, A. 2016. "Robert Bellah's search for community and ethical modernity in Japan Stud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5(2), pp.467~494.
- Brenner, N., and Schmid, C. 2015. "Towards a new epistemology of the urban?" *City*, 19(2-3), pp.151~182.
- Caffentzis, G.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69), pp.23~41.
- Caffentzis, G., and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Supole. 1), pp.92~105.
- Casarino, C., and Negri, A.. 2008. *In Praise of the Common: A Conversation on Philosophy and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Edward Arnold.
- \_\_\_\_\_.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mbers, S.A. 2013. *The Lessons of Rancière*. Oxford University Press.
- Cho, U., and Koo, H. 1983. *Capital Accumulation, Women's Work, and Informal Economies in Korea* (No.21). Office of Wome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 Curcio, and Özselçuk. 2010. "On the common, universality, and communism: A conversation between Etienne Balibar and Antonio Negri." *Rethinking Marxism*, 22(3), pp.312~328.
- Dauvé, G., and Martin, F. 2015. *Eclipse and Re-emergence of the Communist Movement*. PM Press.
- De Angelis, M. 2003. "Reflections on alternatives, commons and communities." *The Commoner*, 6(Winter), pp.1~14.
- \_\_\_\_\_.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Pluto Press.
- \_\_\_\_\_. 2013. "Does capital need a common fix?" *Ephemera*, 13(3), pp.603~615.
- \_\_\_\_\_. 2017.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Zed Books.

- Dowling, el., and Harvie, D. 2014. "Harnessing the social: State, crisis and (big) society." *Sociology*, 48(5), pp.869~886.
- Egerer, M., and Fairbairn, M. 2018. "Gated gardens: Effects of urbanization on community formation and commons management in community gardens." *Geoforum*, 96, pp.61~69.
- Endnotes Collective. 2010. *End Note 2: Misery and the Value Form*.
- Fainstein, S., and Fainstein, N. 1985.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rise of urban social movements." *Urban Affairs Quarterly*, 21(2), pp.187~206.
- Geertz, C.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e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l, R., and Pratt, A. 2008. "In the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precariousness and cultural work."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pp.1~30.
- Gluck, C. 1985. *Japan's Modern Myths: Ideology in the Late Meiji Peri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eber, D. 2008. "Hope in common." *The Anarchist Library*.
- \_\_\_\_\_. 2011. *Debt: The First 5,000 Years*. Melville House.
- \_\_\_\_\_. 2013. It is value that brings universes into being. *HO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3(2), pp.219~243.
- Han, D. 2018. "Turning a home into the commons: The micro-politics of subjectivations in a cohousing community in Seoul." *Inter-Asia Cultural Studies*, 19(1), pp.372~385.
- \_\_\_\_\_. 2019. "Weaving the common in the financialized city: A case of urban cohous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In Chen, Y., and Shin, H. (Eds.) *Neoliberal Urbanism, Contested Cities and Housing in Asia*. Palgrave Macmillan.
- \_\_\_\_\_. 2021. *Practicing Urban Commons between Autonomy and Togetherness: A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Urban Precariat Movement in Tokyo and Seoul*. (PhD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Han, D.K., and Imamasa, H. 2015. "Overcoming privatized housing in Korea: Looking through the lens of commons and the common."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k, M., Müller, A., & Schwegmann, M. (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äuser. pp.91~100.
- Hardt, M., and Negri, A. 2005.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Penguin.
- \_\_\_\_\_.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1995. "Militant particularism and global ambition: The conceptual politics

- of place, space, and environment in the work of Raymond Williams.” *Social Text*, 42, pp.69~98.
- \_\_\_\_\_.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pp.23~40.
- \_\_\_\_\_.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Right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Huron, A. 2015. “Working with strangers in satuated space: Reclaiming and maintaining the urban commons.” *Antipode*, 47(4), pp.963~979.
- Isono, F. 1988. “The evolution of modern family law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2), pp.183~202.
- Karatani, K. 2014.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From Modes of production to Mode of Exchange*. Duke University Press. (조영일 옮김. 2014. 세계사의 구조. 도서출판b)
- Katznelson, I. 1982. *City Trenches: Urban Politics and the Patterning of Clas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zue, M. 1994. *Images of the family in Meiji periodicals: The paradox underlying the emergence of the “home”*. US-Japan Women’s Journal. English Supplement, (7), pp.53~71.
- Kim, M. 1995. “Gender, class, and family in late-industrializing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 pp.58~86.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ontidou, L. 2006. “Urban social movement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ransnational spatialities and flaneur activists.” *City*, 10(3), pp.259~268.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19. *Red Round Globe Hot Burning: A Tale at the Crossroads of Commons and Closure of Love and Terro, of Race and Calss, and of Kate and NEd Despa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we, S. 1986. *Urban Social Movements: The City after Castells*. Macmillan Education Ltd.
- Malinowski, B. 1920. “Kula: The circulating exchange of valuables in the archipelagoes of Eastern New Guinea.” *Man*, 20, pp.97~105.
- Marcuse, P. 2009.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13(2-3), pp.185~197.
- Marston, S. 2003. “Mobilizing geography: Locating space in social movement theory.” *Mobilization*, 8(2), pp.227~233.
- Marx, K. 1973. *Grundrisse*. Penguin Books.



- Marx, K., and Engels, F. 1970. *The German ideology*. International Publishers Co.
- \_\_\_\_\_. 2010. "Me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ists.org.
- Mauss, M. 2002.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Routeldge.
- Mayer, M. 2013. "The onward sweep of social capital: Causes and consequences for understanding cities, communities and urban mov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1), pp.110~132.
- Mayer.M., and Boudreau, J.A. 2012. "Social movements in urban politics: Trend in research and practice." In Mossberger, J., and Clarke, E. (Eds.)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Politics* (1-23).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pp.909~922.
- Miller, B. 2000. *Geography and Social Movements: Comparing Antinuclear Activism in the Bost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iller, B., and Nicholls, W. 2013. "Social movements in urban society: The city as a space of politicization." *Urban Geogaphy*, 34(4), pp.452~473.
- Mitchell, D. 2003. "Social movements, geography of."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p.437~441. Elsevier.
- Molotch, H. 1984. "Romantic marxism: Love is (still) not enough." *Contemporary Sociology*, 13(2), pp.141~143.
- Morini, C., and Fumagalli, A. 2010. "Life put to work: Toward a life theory of value." *Ephemera: Theory & Politics in Organization*, 10.
- Murphie, A. 2001. "Computers are not theater the machine in the Ghost in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s thought." In Genosko, G. (Ed.) *Deleuze and Guattari: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s*. Routledge.
- Nicholls, W. 2008. "The urban question revisited: The importance of cities for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4), pp.841~859.
- Nicholls, W., and Beaumont, R. 2004. "The urbanisation of justice movement?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for the city as a space of contentious struggle." *Space and Polity*, 8(2), pp.119~135.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ckvance, C. 1975. "On the study of urban social movements." *The Sociological Review*, 23(1), pp.29~49.

- \_\_\_\_\_. 2003. "From urban social movements to urban movements: a review and introduction to a symposium on urban mov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1), pp.102~109.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 Ranci re, J. 1992. "Politics, identification, and subjectivization." *October*, 61, pp.58~64.
- \_\_\_\_\_. 1999.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9. "Contemporary art and the politics of aesthetics." In *Communities of Sense: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pp.31~50.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Continuum.
- Read, J. 2011.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From transindividuality to the commons." *New Formations*, 70(70), pp.113~131.
- Saunders, P. 1986.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Hutchinson Education.
- Scott, J. C. 1977.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e University Press.
- Singh, N. 2017. "Becoming a commoner: The common as site for affective socio-nature encounters and co-becomings." *Ephemera: Theory & Politics in organization*, 17(4).
- Smethurst, R. J. 1974. *A Social Basis for Prewar Japanese Militar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rnicek, N. 2017. *Platform Capitalism*. John Wiley & Sons.
- Stavrides, S. 2016. *Common Space: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 Unnikrishnan, H., and Nagendra, H. 2015. "Privatizing the commons: Impact on ecosystem services in Bangalore's lakes." *Urban Ecosystems*, 18(2), pp.613~632.
- Wolf, E. R. 1957. Closed corporate peasant communities in Mesoamerica and Central Java.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13(1), pp.1~18.
- Vercellone, C. 2007.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Elements for a Marxist reading of the thesis of cognitive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15(1), pp.13~36.
- Vrasti, W. 2011. "'Caring' capitalism and the duplicity of critique." *Theory & Event*, 14(4).